

심상을 통한 내면 의식으로부터의 춤의 표현

Expression of Dance from Inner Consciousness Through Image

조 성 희
강원대학교

Cho Sunghe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요약

물은 색, 맛, 향이 없는 물질이지만 인간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며 모든 생명력의 근원이다. 물은 여러 성질을 지니고 있지만 그 중 물의 운동성에서 호기심이 자극된다. 또한 물은 형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운동성이 없고 물과 에너지의 관계는 어떤 면에서 무용수와 안무가의 관계와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무용수는 안무가의 의도와 만나 움직임으로 표현하며 그 움직임들은 각 무용수 개성에 따라 또 다른 이미지를 발산하게 된다. 본 연구는 심상으로부터 인지되는 수류(Flow of Water)가 다양한 움직임의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표현한다.

I. 안무에서의 심상

에릭 프랭클린이 고안한 무용심상은 신체자각을 활용한다. 그의 훈련법은 구체적인 이미지 연상법을 활용해 신체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라 표현법이 증대되어 가는 것이다.[1] 안무가는 무용창작에 영감이 되는 이미지를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으며 관찰에 의해 유도될 수도 있고, 심리학적 테크닉 들은 심상을 중요한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신체와 정신을 명료하게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5]

1. 능동적 상상

안무가는 실제의 경험, 꿈, 혹은 스스로의 잠재의식에서 자발적으로 표출되는 것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림, 사진, 혹은 순간적으로 스치는 이미지가 그의 상상력을 사로잡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춤은 능동적 움직임의 상상으로 발전된다.[2]

2. 유도된 정서적 심상

구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한 후 그 이미지를 가능한 가장 생생하고 자세하게 묘사한다. 완성된 이미지를 관찰하고 어떤 감정, 느낌, 효과에 관한 결과물을 관찰한다.

3. 의도의 구상화

실제로 동작을 행하기 전에 마음의 눈으로 명확한 움직임과 전신의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새로운 형상을 떠

올린다.[3]

II. 분명한 컨셉과 미니멀리즘으로부터의 출발은 관객을 몰입시킨다.

물의 근원적 속성을 표현하는 본 연구는 물의형태, 물의 유동, 물의 장력, 물의 파장 이렇게 크게 네 개의 공간으로 나뉘는데 신체표현의 모습들이 단계적으로 그 형태를 바꾸면서 처음에 닫힌 공간이 점차 열린 공간으로 변화한다. 무용수의 정면 중앙으로부터 물의 형태가 시작되면서 신체 전체에 투영되는 수류의 이미지들에 의해 관객들은 마치 물속에 잠겨있는 것처럼 만든다. 이 같은 설정은 물이 어떤 형태를 갖추거나 혹은 운동성을 가지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물의 다양한 움직임을 이미지로 표현하고자하는 안무가의 의도를 전하는 중요한 포인트로 기능한다. 신체에 투영되는 수류의 이미지는 작품의 논리성을 뒷받침하면서 춤과 음악, 그리고 조명과의 계산된 조합을 시도하고 그것은 상당부분 관객을 몰입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4]

III. 장치가 주는 시각적 강렬함과 다양한 무대 활용 구성

본 연구에서의 무대 공간은 춤을 완성시키는 또 하나의 주인공이 된다. 모든 디자인은 물의 다양한 움직임처럼 변화를 통해 움직임을 갖는다. 전체적으로 네 개의 공간은 물의 흐름과 막혀짐을 춤의 이미지로 표현, 무용수 자체가 한 줄기의 물이 되어 흘러가다가 막히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충동을 받고 파장을 일으켜가는 주요 도구가 된다.

Space1에서는 물의 형태를 만들기 위한 닫힌 공간을 설정하였고, Space2에서는 입구와 출구를 통해 물의 흐름을 만들어 준다.

Space3에서는 두 개의 입구와 하나의 출구를 설정, 각기 다른 수로에서 흘러들어온 물이 새로운 충돌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Space4에서는 하나의 입구와 세 개의 출구를 설정, 물의 유입을 억제하면서 또 다른 세계로 향해 나가는 출구를 열어 놓았다.

SPACE 1. 물의형태

물에는 형태가 없다. 어떤 틀이 주어질 때만 형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틀에 어떤 에너지를 주었을 상황에서 움직임을 볼 수 있다. 무용수의 신체라는 틀의 제한 속에 넣어두고 서서히 움직임을 준다.

SPACE 2. 물의 유동

물에는 흐름이 있다. 그 흐름은 수로에 의해 움직이며 그렇게 계속되는 흐름들 속에 움직임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틀 속에 갇힌 무용수에게 작은 수로를 열어준다.

SPACE 3. 물의 장력

물의 흐름이 빨라지고 수로가 많아짐에 따라 여러 수로에서 흘러나온 물들은 서로 부딪쳐서 충돌을 일으키며 그 충돌로 인해 장력이 일어난다. 안무가는 여러 수로를 열어놓고 무용수의 움직임을 다양하게 표현하도록 요구한다.

SPACE 4. 물의 파장

수로로부터 흘러나온 물의 충돌에 의한 장력 뒤에는 그 움직임이 퍼져 파장을 이루고 다시, 또 다른 움직임을 준비한다. 마치 하나의 운동이 끝나고 난 뒤 또 다른 에너지를 기다리며 대기하듯 잔잔한 파장을 마련한다.

■ 참고 문헌 ■

- [1] Eric Franklin, 박명숙·김양근 역 테크니과공연을위한 무용심상, pp.11-20, 금광, 서울, 2000
- [2] Paulette Shafrenski, 황문숙 역, 현대무용 - 12가지 창조적 문제와 해결실험-, 금광, 서울, 1998
- [3] Eric Franklin, 박명숙·김양근 역 테크니과공연을 위한 무용심상, pp.27, 금광, 서울, 2000
- [4] 장희재, "한국 현대 춤에 나타난 미니멀리즘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5] 구본숙, "자아표현 능력이 현대무용 창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